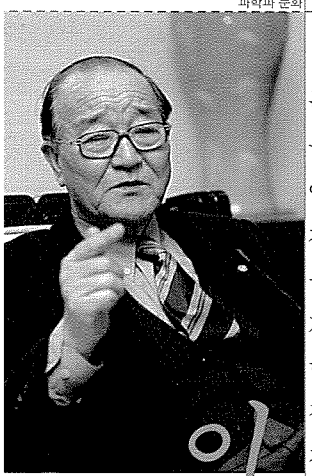
science people

과학기술인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

효선제가 국가 공신의 상을 그려서 걸었다는 중국의 기린각. 로큰롤의 성립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미국의 로큰롤 명예의 전당. 이제 과학인들도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명예의 전당은 고려 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과학자를 선정하여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보존, 전시하는 사업이다. 우선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달 중으로 서울과학관 내에 200평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6년 경기도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완공되면 1층 전시공간을 1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4인은 인물선정위원회가 과학기술 단체 기관 등이 추천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기여도와 세계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인물들이다. 또한 매년 4명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 2006년까지 30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은 과학기술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로 선정된 14인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안동혁, 최형섭, 이호왕 박사를 만나보았다.

과학과 문화



이호왕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달 예술인을 선정하는 등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지만, 자연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을지로'처럼 거리명에서도 역시 자연과학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의 전당은 과학기술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다니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과학인으로서 고문 · 자문 역할을 열심히 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등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의사로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1955년부터 13년 동안 일본 뇌염 연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1964년부터 5년 간 NIH(미 국립보건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뇌염환자가 감소하여, 곧이어 유행성출혈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000만 달러를 가지고도 실패한 일을 10만 달러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빨리 결실을 맺지 못하자 미국측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험 도중 전염되어 연구원들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나중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전염되었던 8명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탄강의 기적(한탄바이러스에 빗댄 표현)"이라고 부르지요(웃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쓸 수 있고 특허까지 받은 혼합 백신을 상품화, 수출하여 인류복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벨의학상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벨과학상을 추천할 기관이나 사람이 없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80여 명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된 학자가 없는 우리나라는 노벨상 없는 스웨덴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감자를 캘 때는 매우 힘이 들지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가 뿌리 채로 끌려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정 인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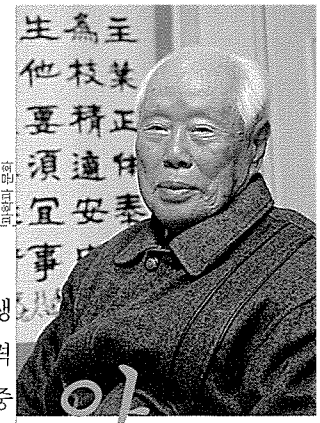
최무선(?~1395) 고려 말의 화약 발명가로 화약 제조법을 전파하고 화통도감을 설치해 무기 기술 발달에 기여.

장영실(?~?) 혼천의 · 자격루 등 천문기기를 제작하여 조선 전기 과학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

이천(1376~1451) 조선 시대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장영실과 함께 천문관측기기 개발에 노력.

이순지(1406~1465) 조선 세종대왕 시절 최고의 천문학자로 인정받음.

허준(1546~1615) 조선 시대 선조 광해군 때의 명의로 전통의학을 확립하고 동의보감 편찬.



이동혁

후배 과학자나 현 과학기술계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좋은 인간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학문과 기술이 정립되어야 진정한 과학기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 특출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천재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잘해야 하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천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수학만 잘 했어도 큰 업적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연과학자가 나오려면 이런 소질 있는 인재를 발견,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굶어 죽지 않도록…. 농사를 하려면 씨도 필요하지만 환경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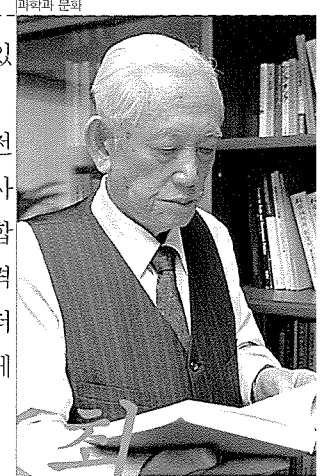
앞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연구나 일이 있다면?

미련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40년, 연구 생활을 20년 했어요. 요소비료 · 유리 · 시멘트 · 화력 등 많이도 했지요. 1926년에 첫 논문을 썼는데 궁중 간장에 대한 것이었어요. 과학 잡지와 〈과학신화〉라는 책도 냈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해 보이는데요….

65살 때 쓰러졌었어요. 그 뒤론 술 · 담배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걷는 운동을 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도 하루에 3시간씩 걷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욕심을 버려야 해요.

과학과 문화



최형섭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의 위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노벨상 수여시 학술원 회원이 입장할 때 국왕이 기립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과학인들이 기립하지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인들에게 사회적 우선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버타운과 국립묘지를 세우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인력개발과 법 · 제도 등 과학기술개발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KIST와 같은 공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곳은 기업이고 기술을 아는 곳은 학계인데, 이 두 곳이 연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역시 사명지향에서 벗어나 학문 추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NIH의 경우 투자도 매우 활발하고 우수 인력이 많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그 곳으로 더 보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NIH가 과학기술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립선 수술과 눈 수술을 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는 후배에게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_허주희 | 사이언스올제 기자

우장춘(1898~1959)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고 한국 농업근대화에 큰 기여를 한 육종학자.

이원철(1896~1962)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로 새로운 별을 발견하여 '원철성'이라 명명.

이태규(1902~1992) 세계적인 이론 화학자로 '비뉴턴 유도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비뉴턴 유동 현상들을 거의 완전하게 설명.

현신규(1911~1986) 임학자 · 육종학자로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여 국토를 푸르게 하는 데 기여.

홍대용(1731~1783) 지전설을 주장하는 등 조선 후기 과학사상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

김정호(?~1864)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로 지도와 지리학을 집대성했으며, 좌표를 이용한 대축척 지도첩으로 〈대동여지도〉를 완성